

교육부 “강동완 전 총장 해임은 부당” 결정

조선대 이사회 “행정 소송도 불사”

감정싸움 격화 또다시 혼돈 속으로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선정돼 책임을 물어 강 총장을 해임한 가운데 교육부가 해임 결정을 취소해 내려 다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9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대학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강 총장이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 취소로

강 전 총장은 직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인이사회와 강 전 총장 간 ‘직위 해제’, ‘해임’ 공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사회는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책임 등을 물어 강 총장을 3개월 직위 해제했다.

총장으로서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으로 교무를 총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사다.

강 총장은 이에 불복, 교육부에 직위 해제와 관련한 소청을 제기했고 법원에는 직위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소청에서 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한 반면 법원은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가 이번 2차에서도 “직위 해제나 해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조선대는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강 총장과 이사회 사이의 감정싸움이 격화되는데, 최근 이사회와 교수평의

회 간에 대학 혁신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져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강 총장은 “교육부가 다시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부 파견 임시 이사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 이사회 간담회와 20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 해임 결정 취소와 직원들 간 계파 갈등으로 조선대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싸여있다

특히 학사구조 재편 등 혁신안을 놓고 고도 혁신위원회와 교수단체 간 이견과 계파 갈등이 심각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 측 교수들을 겨냥한 비위 폭로 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치러진 직원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가 선거법 시비로 아직까지 당선자 발표도 못하고 있어 내부 갈등은 더욱 노골화돼 가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자율개선탈락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면서 혁신적으로 안정화돼 가는 것 같았는데 직원노조 선거법 시비 등 다시 혼돈에 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5~23	흑산도	16~21
담양	16~23	구례	15~24
화순	15~24	곡성	15~23
영광	16~23	완도	17~22
함평	15~24	강진	16~23
무안	15~23	장흥	16~23
영암	15~24	해남	15~23
진도	16~22	고흥	15~24
신안	16~24	보성	14~23

일출 05:18 일몰 19:46
월출 12:16 월몰 00:49

목포	만조 07:36 19:56	여수	만조 02:17 14:57
	간조 12:54 --:--		간조 08:37 20:5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이순신거북선 관광객 7명 추락

주말 사건·사고...5톤 트럭 상가 덮쳐

‘여수 거북선’ 조형물에서 계단이 무너져 여행객들이 추락사고를 당하고 영암에선 트럭·승합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지난 주말 전남지역은 크고 낮은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9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8시44분께 이순신 광장서 거북선 조형물로 오르는 목재 계단 일부가 파손돼 관광객 7명이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김모(59·여)씨가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단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8일 낮 12시 45분께 여수시 신

기동한 교차로에선 5톤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인근상가를 덮쳐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에 반한 가로수는 교차로 앞쪽 골프용품점을 덮쳐 벽과 유리가 파손되고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다행히, 골프용품점엔 손님들이 없어 인명사고는 발생치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주변 상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암에선 트럭과 승합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8일 새벽 5시 44분께 영암군 신북면 한 이면도로서 2.5톤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해 운전·동승자 8명(남녀 각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서 치료 중이다. /고광민 기자



수국 보면서 힐링하세요 8일 오전 수국축제가 열리고 있는 해남군 현산면 4est수목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수국품종원을 걸으며 힐링하고 있다. 한 달여 동안 수국축제가 열리는 포레스트수목원에는 1,500여종의 초목과 꽃이 어우러져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계절별로 꽃을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 /김태규 기자

미쓰비시 주주총회 항의방문 추진

강제노역 배상 이행 호소 등 목적

시민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장에서 강제노역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방문단을 구성한다.

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을 찾아갈 방문단을 모집하고 있다.

방문단은 오는 27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장에서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피케팅 등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일본 지원 단체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일본 방문은 누구나 방문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민모임 측이 방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등 전방 기업들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판결이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미쓰비시 측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 등 지적 재산권을 압류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인 대표는 “이번 방문단 모집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주주들에게 한국 법원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직접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전남 행사장 나들이객 ‘복적’

주말을 맞아 광주·전남 주요 축제·행사장에 나들이객들로 복적거렸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흐린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주말인 8~9일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은 가족과 연인 등의 나들이객으로 복적였다.

광주 중외공원과 국립아시아 문화공원 하늘공원 등지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피크닉을 나온 가족 연인들로 붐볐다.

광양읍에서 열리는 라벤더축제장에도 많은 인파들로 붐볐다. 행사장에는 보랏빛으로 수놓은 라벤더와 함께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앞서 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도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 2019)’ 광주·전남 예선 대회가 치러져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경찰, 음주운전 주야불문 단속...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광주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앞두고 주야 불문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주야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08%이다.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인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도 상향되거나 신설됐다.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를 2차례 이상 낼 경우, 각각 2년과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

고, 사람을 사망케 하면 5년 동안 면허를 획득할 수 없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간과 장소로 수시로 변경하는 등 상시 및 불시 단속을 강화해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어 전날 과음 후 운전행위는 각별히 주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고광민 기자

동해와 남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퍼핀스베이리조트

전국 4개 직영점 확장 오픈기념!!!

4년간 **990,000원**에 누리는 퍼핀스베이리조트 회원권

“매년 회원 가입 마진에 힘입어 추가 300만 고객에게 더 드립니다.”

- 30박 무료 숙박권
- 골프 제휴사 (그린피 5%-20% 2년간 할인)
- 무료 숙박권 5박
- 수상레저 상품권 (1만원권) 14매 증정
- 바베큐 상품권 (2만원권) 10매 증정
- 커피상품권 (5천원권) 10매 증정
- 전국 퍼핀스베이리조트 직영점 회원가 이용 가능(4년간)

이용 가능 골프장
- 전라도권 23여곳, 경상도권 40여곳, 제주도권 20여곳

www.puffinsbayresort.com

퍼핀스베이리조트

퍼핀스베이리조트만의 특별함

전국 각 지역의 퍼핀스베이리조트는 산과 함께, 강과 함께, 바다와 함께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별장입니다.

퍼핀스베이리조트 멤버

입회금액 : 990,000원 (VAT포함)
멤버기간 : 4년
자 격 : 본인 및 직계가족
멤버카드 : 기명 1매

입금전용계좌

(주)모두누림
농협 351-1043-5911-23

- 금일 현금 결제시 영화 CGV 무료권 2매 증정
- 본 상품은 확장기념 홍보이벤트 상품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및 법인 멤버는 별도 상담합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평직영점

낙산직영점

명덕직영점

완도직영점

바베큐

수상레저

골프

입회가입문의 02)535-1910 상담문의 시간은 평일 오전 10~17시 까지입니다.